www.stylechosun.co.kr

10

October 2026
vol. 310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Love Your Style

RALPHLAUREN.CO.KR

RALPH LAUREN

랄프 로렌 퍼플 라벨 스토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층 02 3438 6235

랄프 로렌 퍼플 라벨 & 더블알엘 스토어 신세계백화점 본점 6층 02 310 1677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5층 051 745 1663

CHANEL

Contents

OCTOBER 2026 / ISSUE.310

06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08_SELECTION 재킷과 토트백부터 워치와 주얼리까지, 단정하고 우아한 클래식 프레피 룩.

09_UNBOUND ACCENT 성별의 경계를 넘어, 대담한 펜던트 하나로 시선을 환기하는 젠더리스 네크리스 10.

10_SELECTION 체크 캡과 카디건, 울 팬츠부터 레더 액세서리까지, 맨즈 프레피 룩을 완성할 아이템.

11_DEEP IN TIME 매트한 세라믹, 은은하게 빛나는 메탈, 정교한 다테일까지. 고요하고 짙은 블랙이 시계의 실루엣과 소재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하나의 컬러로 펼쳐지는 블랙 워치의 세계.

12_사적인 컬렉션은 어떻게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 되는가 지금, 현대미술 시장의 규모만을 잣대로 삼지 않고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태국 방콕은 설렘이 감도는 도시 중 하나일 것이다. 찬란한 사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고, 아피찻퐁 위라세타쿤과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처럼 국제 미술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작가들을 배출했지만, 동시대 미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국제적인 담론과 연결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태국 미술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태국 재계의 컬렉터들이 새로운 미술 공간을 열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15_여행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환대의 미학 럭셔리 부티크 호텔인 '137 필라스 스위트 & 레지던스 방콕(137 Pillars Suites & Residences Bangkok)'은 대로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주거·상업 골목인 '수쿰윗 소이 39' 안쪽에 위치해, 주변에 유명 쇼핑몰과 맛집이 즐비한 상권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도심의 소음이 기분 좋게 잦아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안락한 휴식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는 이유다.

16_SHAPE OF YOU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는 유니크한 셰이프의 워치 셀렉션.

17_FINE ARTISTRY 주얼리 메종의 정교함에서 드러나는 장인 정신을 발견하는 즐거움.

18_AFTER FIVE 오후 5시, 여자의 우아한 변신이 시작된다.

22_OWN YOUR TIME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 코드.

26_GET THE LIST 일하는 공간에도 분명한 취향이 녹아 있다. 단정함과 과감함이 교차하는 뉴 오피스 신.

28_A WOMAN IN BLACK 가장 시크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우아하게. 또다시 블랙의 매력에 빠지다.

36_CARRY THE SEASON 다채로운 F/W 신상 백 스타일로 보는 남자의 취향.

38_EDITOR'S PICK 기분 좋은 잔향을 남기는 향수와 생기 있는 컬러를 더하는 립, 피부 컨디션을 섬세하게 가꿔줄 스킨케어까지. 일상을 한층 풍성하게 채워줄 뷰티 리스트.







랄프 로렌 2026 폴/홀리데이 캠페인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과 따뜻한 홀리데이의 순간을 그려낸다. 가족, 오랜 친구들과 낚시와 독서, 음악을 즐기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담았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익숙한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과 가족이 선사하는 삶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문의 02-3438-6235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kr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khy@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지현 sjkjh00@gmail.com **디자인** 나나버나스튜디오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qeelin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2F,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F
qeelin.com

INSIGHT



Tweed Match

랄프 로렌 컬렉션이 2026 가을 시즌을 맞아 클래식한 도니골 트위드에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더한 셋업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울과 캐시미어를 혼방한 트위드에 잔잔한 컬러 스페클로 깊이 있는 질감을 살리고, 셰리 울 블렌드 도니골 트위드 톱에는 코르셋에서 착안한 디자인과 스쿱 네크라인, 버튼 디테일을 적용했다. 함께 선보이는 폰테인 울 블렌드 도니골 트위드 스커트는 길고 슬림한 라인에 벨트 루프와 5포켓, 슬릿을 더해 정교한 테일러링을 강조한다. 동일한 소재의 톱과 스커트를 조화롭게 매치하면 도니골 트위드 특유의 깊이 있는 질감과 랄프 로렌 컬렉션의 정제된 스타일이 완성된다. 올가을 클래식과 모던한 감각을 아우르는 트위드 셋업을 눈여겨볼 것. 톱 2백60만원대, 스커트 3백90만원대. 문의 02-3467-6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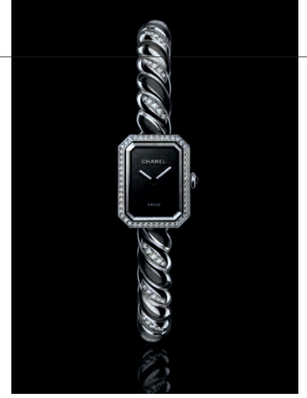
Timeless Radiance

타임리스한 여성 워치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해온 오메가 컨스텔레이션이 올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1982년부터 이어져온 시그너처 디자인인 케이스 양 끝의 클러와 모노랭 브레이슬릿, 하프문 패싯 등 고유의 헤리티지 디테일은 충실히 계승하면서 소재와 컬러, 다이얼 텍스처에 다채로운 변주를 주어 현대적인 우아함을 구현했다. 그중 29mm 문사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베젤과 자개 다이얼을 조합한 모델이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이얼에는 방사형으로 펼쳐지는 슈퍼노바 패턴을 입혀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생동감과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컨스텔레이션의 유산을 이어가는 동시에 정교한 완성도와 신선한 미학을 담아낸 이번 컬렉션은 총 12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문의 02-3467-8632



Magic of Pink

늘 다양한 컬러 스톤과 소재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던 반클리프 아펠의 알함브라 컬렉션이 메종의 놀라운 기술력과 만나 또 한번 새롭게 탄생한다. 반투명 핑크 에나멜을 스톤화해 세팅하는 공법을 개발해 적용한 것. 반투명한 핑크 에나멜층 사이에 미세한 기포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으며, 둥글게 다듬은 표면 위로 빛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균일하고 매끈한 단색과 달리 미묘한 표정을 자아내는 이유다. 이 독특한 핑크빛은 17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골드-루버' 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빈티지 알함브라 펜던트, 브레이슬릿, 네크리스와 매칭 알함브라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한번 알함브라의 매력에 빠져들 시간이다. 문의 1877-4128



Prime Time

샤넬 매장이 있던 방돔 광장과 샤넬의 아이코닉한 향수 N°5의 보틀을 본떠 탄생한 샤넬 프리미에르 워치는 브랜드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작년 샤넬 하우스는 가장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인 새로운 뱅글 스타일의 올로 골드 프리미에르 갈롱(PREMIÈRE GALON)을 선보이며 프리미에르 워치의 디자인적 진화를 이뤘다. 그리고 올해 가브리엘 샤넬의 수트 라인을 강조하고 실루엣의 구조미를 완성하기 위한 브레이드 트리밍 디자인의 새로운 프리미에르 갈롱을 선보인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버전, 화이트 골드와 블랙 래커로 완성한 버전까지 총 4개의 베리에이션을 선보이며 프리미에르 갈롱 컬렉션을 더욱 확장했다. 문의 080-805-9628



Start Refre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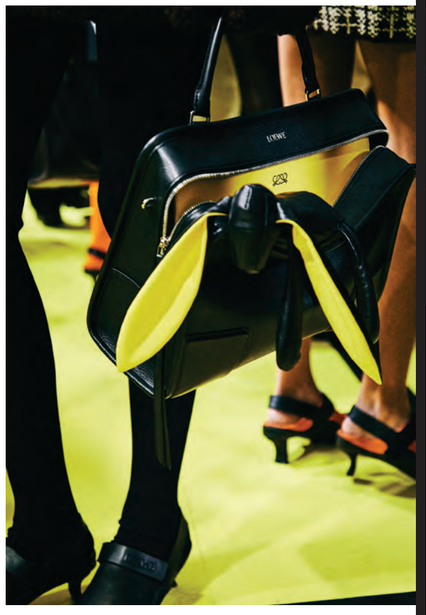
차 안에서 기분을 전환해줄 카 디퓨저 5.

(위부터 차례대로) **조 말론 런던 카 디퓨저 하우스 & 리필 세트 #라임 바질 앤 만다린** 상큼한 라임에 톡 쏘는 바질과 부드러운 백리향이 어우러진 산뜻한 향이 일품. 16만7천원. 문의 1644-3753 **바이레도 카 디퓨저 케이스 & 카 디퓨저 리필**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송풍구 장착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케이스 13만9천원, 리필 7만9천원. 문의 1533-7305 **메종 마르지엘라 프래그런스 레이지 선데이 모닝 카 & 프래그런스 디퓨저** 포근하면서도 깨끗한 비누 향으로 매일 새 차 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12만원. 문의 080-363-5454 **겔랑 라르 & 라 마티에르 컬렉션 카 디퓨저** 아이코닉한 패턴의 골드 케이스가 오브제로도 손색없다. 케이스 13만8천원, 리필 7만3천원. 문의 080-343-9500 **아틀리에 코롱 베르가못 카 디퓨저 오랑쥬 상긴느 세트** 지친 일상에 리프레시를 선사할 상큼한 오렌지 시트러스 향. 11만3천원. 문의 080-363-5454 포토그래퍼 **박재용** 인턴 에디터 **김지현**



Tag of Luck

중국의 상서로운 상징에 동시대적 디자인을 접목해 동양의 미를 선보여온 키린이 색다른 스타일의 주얼리를 공개했다. 밀리터리 태그 목걸이에서 영감받은 울루 태그 네크리스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시그너처 울루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다. 행운과 긍정의 의미를 담아 연인, 가족은 물론 친구와 나눠 착용하기에도 좋으며, 태그 펜던트 뒷면에는 이름과 날짜, 메시지를 새길 수 있어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다. 키린의 다른 컬렉션과 믹스 매치해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의 02-3479-1962



Charming Twist

로에베가 하우스의 아이콘인 아마조나 180 백에 아티스트 코시마 폰 보닌(Cosima von Bonin)의 독창적 세계관을 풀어낸 새로운 '레이지 도그 아마조나 180 백'을 공개했다. 잭 맥콜로와 라자로 에르난데스가 로에베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컬렉션 중 하나로, 수공예와 예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유쾌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느긋하게 누운 강아지의 모습을 위트 있게 담아내고, 특수 개발한 광택감 있는 버펄리노 레더에 블랙과 옐로 컬러를 대비시켜 캐릭터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전면에는 강아지 귀를 연상시키는 디테일을 더했으며, 탈착 가능한 강아지 참을 활용해 색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79-1785



Call of the Wild

레오퍼드부터 치타까지, 야생의 매력을 담은 애니멀 프린트 아이템.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이보리 컬러에 레오퍼드 패턴과 블랙 보더로 선명한 대비를 살린 스카프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문의 0030-8321-0794. 레오퍼드 패턴에 블랙 보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헤니 발레리나 플랫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치타를 닮은 블랙 스폿을 더한 레더에 메탈 T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T 타임리스 쇼퍼 백 4백49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달마티안을 떠올리게 하는 불규칙한 블랙 스폿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살린 램 스킨 글러브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서벌(Serval)의 패턴이 연상되는 그래픽에 로즈 골드 컬러 메탈을 조합한 에나멜 소재의 클릭 아쉬(Clic H) 브레이슬릿 1백35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EXHIBITION

대구간송미술관 〈겸재 정선 – 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展

우리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화가, 겸재 정선의 묵부하고 깊은 작업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역대급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겸재 탄신 350주년을 기념해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들이 협조해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작품 2백16점을 선보인다. 2022년부터 준비해온 전시로, 〈경교명승첩〉과 〈해악전신첩〉에 수록된 회화 전면이 처음 공개된다. 대표작을 넘어 한 화가의 삶과 인간관계, 작품 세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다. 전시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경교명승첩〉에서는 정선의 일상과 예술적 교류를 만난다. 책이 놓인 방 앞에서 화초를 바라보는 '독서여가'는 작품 속 인물의 일상뿐 아니라 화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한다. 평생의 벗인 시인 이병연과 시와 그림을 주고받으며 쌓은 우정은 '시화환상관'과 '촉재제시'에 담겼다. 별도 공간에서 선보이는 '청풍계'는 스승 김창흡의 집안과 인연이 깊은 장소를 그린 작품이다. 한양 장동에서 비롯된 안동 김씨 가문인 장동 김문과의 인연은 그가 당대의 주요 인물들과 교류하며 화가로 성장한 배경을 보여준다. 정선의 시선은 한양과 한강 주변에서 영남의 풍경, 전국 각지의 명승으로 뻗어나간다. '달성원조', '도산서원', '박생연' 등은 실제 경관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진경산수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작업 세계를 산수화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중국 고사를 조선의 풍취로 풀어낸 '여산초당'과 꽃과 동물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화훼영모화첩〉은 고전과 일상을 넘나든 화가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마지막 전시실은 정선이 평생 즐겨 그린 금강산과 관동의 풍경으로 채워진다. 국보 '금강전도'와 보물 '풍악내산총람'을 비롯한 작품을 비교하면,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진경산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무르익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경관에서 출발한 그림은 세월이 흐르며 점차 응축되고 추상적인 시선으로 나아간다. 이번 전시는 단지 조선의 풍경을 그린 화가를 넘어, 우리 산천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평생에 걸쳐 완성해간 예술가를 만나게 한다. 전시는 12월 27일까지. 글 **고성연**



4부 진경산수 Ⅲ 금강산과 관동 섹션에서 소개되고 있는 '금강전도'와 '풍악내산총람'. ※ 이미지 제공_대구간송미술관



2부 진경산수 Ⅱ 지역 명승 섹션에서 겸재가 지방관 시절 남긴 영남의 진경산수를 선보이는 특별 공간. ※ 이미지 제공_대구간송미술관



화이트 셔츠, 스트라이프 패턴, 화이트 트리밍과 포켓 디테일의 재킷 모두 가격 미정 **톰 브라운**



18K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과 케이스에 다이아몬드와 그린 래커 다이얼을 매치한 오버시즈 셀프 와인딩 41mm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옐로·화이트·핑크 골드와 화이트 세라믹을 조합하고 0.23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쾌트로 화이트 에디션 펜던트 라지 가격 미정 **부쉐론.**



카프 스킨으로 제작한 셀 참 가격 미정 **로에베.**



실버 톤 로고 아일릿으로 포인트를 준 블루 그레인 레더 글러브 69만5천원대 **아미.**



부드러운 곡선의 오벌 프레임으로 우아한 무드를 배가하는 선글라스 가격 미정 **막스마라.**

for her Selection

재킷과 토트백부터 워치와 주얼리까지, 단정하고 우아한 클래식 프레피 룩.

PHOTOGRAPHED BY **KIM YOU TAE**

톰 브라운 02-3479-1618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루이 비통 02-3432-1854
부쉐론 02-3467-8334
로에베 02-3479-1785 **샤넬** 080-805-9628
블랑팡 02-3479-1833 **토즈** 02-3448-8233
막스마라 02-3479-1792 **아미** 02-6956-8782
포멜라토 02-3143-9486 **디올** 02-3480-0104
스포트막스 02-511-3935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그린 컬러 실크 트윌에 아이코닉한 패턴을 담은 스퀘어 스카프 가격 미정 **샤넬.**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그린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한 레이디버드 컬러즈 34.9mm 가격 미정 **블랑팡.**



가죽 소재에 메탈 T 버클로 장식하고 양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T 타임리스 벨트 가격 미정 **토즈.**



18K 로즈 골드에 약 2.2캐럿의 브라운 다이아몬드와 약 1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은은한 광채를 발하는 사비아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포멜라토.**



포근한 시어링 소재로 구조적인 플레어 실루엣을 강조한 미니스커트 가격 미정 **디올.**



매끄러운 카프 스킨에 구조적인 실루엣과 벨트 디테일을 적용해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내는 더 랄프 토트백. 26.7×21×14cm. 가격 미정 **랄프 로렌 컬렉션.**



모노그램 코팅 캔버스 소재로 제작한 수진느 라켓 파우치. 28×43×5cm. 3백만원대 **루이 비통.**



유니크한 메탈 버클 장식을 더한 안기지아 레더 로퍼 가격 미정 **스포트막스.**

스타일리스트 **김영우** 어시스턴트 **김지원**



Unbound Accent

성별의 경계를 넘어, 대담한 펜던트 하나로 시선을 환기하는 젠더리스 네크리스 10.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쇼파드 해피 다이아몬드 코끼리 네크리스** 윤리적인 로즈 골드에 브랜드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움직이는 다이아몬드와 0.01캐럿 사파이어를 세팅해 코끼리를 형상화했다. 9백28만원. 문의 02-6905-3390 **티파니앤코 T1 서클 다이아몬드 펜던트** T 모티브의 로즈 골드를 따라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수놓았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네크리스** 퀼트 패턴의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구성한 펜던트 사이로 다이아몬드 하나가 존재감을 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반클리프 아펠 조디악 에어리즈 메달** 옐로 골드 위에 별자리 양자리를 세밀하게 양각해 풍부한 입체감을 살렸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키린 라지 올루 태그 펜던트** 브랜드를 상징하는 호라병 세이프의 올루에 밀리터리 태그 디자인을 더하고,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화려한 디테일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962 **다미아니 벨 에포크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담은 십자가 펜던트 안에 또 하나의 십자가를 겹쳐 독특한 조형미를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그라프 로렌스 시그니처 컬렉션 라지 체인 펜던트** 다이아몬드의 면을 연상시키는 패싯 커팅의 볼드한 옐로 골드 링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8백92만원. 문의 02-2150-2320 **디올 파인주얼리 마이 디올 네크리스** 까나쥬 패턴의 옐로·화이트·핑크 골드 링을 조합했으며, 원하는 순서에 따라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포멜라토 이코니카 네크리스** 영원을 의미하는 작은 원형 펜던트를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프레드 포스텐 라이즈 네크리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케이블과 버클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겹겹이 배치해 대담한 인상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에디터 **김하얀**

어시스턴트 **김지원**



18K 로즈 골드에 오닉스와 자개를 세팅하고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준 폼폼 닷 펜던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포멜라토.**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는 세븐티즈 크로노그래프 파노라마 데이트 40mm 가격 미정 **글라슈테 오리지날.**



체크 패턴과 로고 패치로 완성한 코트 소재 캡 가격 미정 **몽클레르.**



18K 화이트 골드와 화이트 세라믹에 33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쾌트로 특유의 아이코닉한 실루엣을 살린 쾌트로 더블 화이트 에디션 워딩 밴드 가격 미정 **부쉐론.**



포근한 캐시미어 소재와 코펠 컬러, 야무로운 숄 칼라가 어우러진 코펠 니트 카디건 3백만원대 **벨루티.**

for him Selection

체크 캡과 카디건, 울 팬츠부터 레더 액세서리까지, 맨즈 프레피 룩을 완성할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YOU TAE**



100% 버진 울 소재를 곤더디기 없이 풀어지는 실루엣은 물 어내 단정한 인상을 주는 울 팬츠 3백만원대 **프라다.**



폴리싱과 새틴 마감한 티타늄 케이스에 선레이 토프 다이얼을 적용한 클래식 퓨전 에센셜 토프 1천3백40만원대 **위블로.**



페이즐리 패턴의 블랙 레더 디테일로 단정한 룩에 포인트를 더해줄 레이스업 슈즈 가격 미정 **에트로.**

테니스 라켓 2백20만원 **생 로랑.**



브라운 마블 아세테이트 프레임과 스퀘어 셰이프가 레트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LV 헤리티지 스퀘어 선글라스 78만원 **루이 비통.**



부드러운 송아지가죽 소재에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룸 L42 위켄더 백. 42×27×20cm.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울류 이터너티 뱅글 1천4백75만원 **키린.**



브라운 카프 스킨에 앤티크 골드 피니시의 버클이 돋보이는 디올 메달리온 벨트 가격 미정 **디올.**



베이지 컬러의 코튼 혼방 소재에 아미 드 꾀흐 모티브를 수놓은 양말 9만5천원 **아미.**

포멜라토 02-3143-9486
글라슈테 오리지날 02-310-1749
몽클레르 0030-8321-0794
부쉐론 02-3467-8334 **키린** 02-2118-6228 **벨루티** 02-536-1895 **프라다** 02-3442-1830
생 로랑 02-3438-5700 **루이 비통** 02-3432-1854 **로로피아나** 02-6200-7799 **에트로** 02-3446-1321
아미 02-6956-8782 **디올** 02-3480-0104 **위블로** 02-540-1356

스타일리스트 **이승은** 헤어 **샤원임** 어시스턴트 **김지원**



(위부터 차례대로) **파네라이 루미노르 GMT PAM01460** 브랜드 최초의 40mm 세라믹 루미노르 모델로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블랙 선레이 브러시드 샌드위치 다이얼을 조합했다. 2개의 시간대를 표시하는 GMT 기능과 약 3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자동 P.900/GMT 칼리버를 장착했다. 2천3백37만원. 문의 02-2118-6256
샤넬 워치 J12 칼리버 12.1 38mm 케이스부터 다이얼, 브레이슬릿까지 블랙 컬러로 통일해 모던한 인상을 주며,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는 세라믹 소재를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IWC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늄® 포르투기저 컬렉션 최초로 세라타늄을 적용한 타임피스. 티타늄의 가벼운 무게와 세라믹에 가까운 경도 및 스크래치 저항성을 갖춘 소재를 41mm 케이스와 크라운, 푸셔에 사용했다. 블랙 다이얼과 아플리케, 핸즈에 스퀘어 패턴의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한 올 블랙 디자인으로 포르투기저 특유의 클래식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브랜드 자체 제작 69355 칼리버로 구동하며 4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15
에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트리뷰트 크로노그래프 49.4×29.9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앞뒤로 서로 다른 다이얼을 구성했다. 앞면에는 선레이 마감의 블랙 다이얼과 핑크 골드 미닛 트랙, 아플리케 아워 마커, 도피네 핸즈를 배치하고 뒷면은 오픈워크 구조를 통해 크로노그래프의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6천9백만원. 문의 02-3449-5912
피아제 폴로 데이트 워치 42mm 스틸 라운드 케이스에 쿠션형 블랙 기요셰 다이얼을 배치하고 슈퍼-루미노바®를 입힌 핸즈와 인덱스 사이로 P를 연상시키는 레드 팁 초침을 더했다. 자체 제작 1110p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2천만원대. 문의 1877-4275
위블로 클래식 퓨전 블랙 매직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베젤에 자리한 H형 스크루가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강조한다. 약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춘 HUB111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43mm 스틸 케이스에 선버스트 메테오 그레이 다이얼을, 4시와 5시 방향 사이에 날짜창, 세일 캔버스 스트랩을 장착했다. 칼리버 1315로 약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1천6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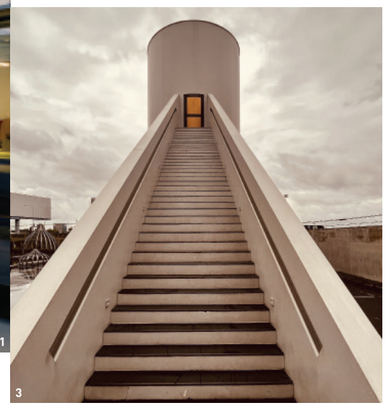
Deep in Time

매트한 세라믹, 은은하게 빛나는 메탈, 정교한 디테일까지. 고요하고 짙은 블랙이 시계의 실루엣과 소재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하나의 컬러로 펼쳐지는 블랙 워치의 세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딥 방콕(Dib Bangkok)의 창조적 도전

사적인 컬렉션은 어떻게 도시의 문화적 자산이 되는가

지금, 현대미술 시장의 규모만을 잣대로 삼지 않고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태국 방콕은 설렘이 감도는 도시 중 하나일 것이다. 찬란한 사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고, 아피찻퐁 위라세타쿤과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처럼 국제 미술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작가들을 배출했지만, 동시대 미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국제적 담론과 연결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태국 미술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태국 재계의 컬렉터들이 새로운 미술 공간을 열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화재로 폐허가 된 옛 인쇄소를 비전형적인 예술 공간으로 바꾼 방콕 쿤스트할레부터 대규모 개인 컬렉션을 바탕으로 문을 연 딥 방콕(Dib Bangkok), 2027년 개관을 앞둔 디센트럴까지. 사적 자본에서 출발한 이 공간들은 방콕의 미술 생태계에 새 흐름이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현대적 건축으로 개관 전부터 기대를 모은 딥 방콕은 2025년 12월 문을 연 뒤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장소(World's Greatest Places)' 100곳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에는 블랙핑크 리사의 신곡 '사와디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 전시가 열린 지난 9월 말,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딥 방콕은 단순한 미술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가을 서울에서 설립자 푸랏 창 오사타누그라(Purat (Chang) Osathanugrah, b. 1993)와 나눈 대화에서 그가 강조한 '문화적, 창의적 부(cultural and creative wealth)'라는 개념도 새롭게 각인됐다. 사적인 컬렉션과 자본은 어떻게 한 도시, 나아가 한 국가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딥 방콕은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새로운 사례다.

1 태국 방콕의 현대미술관 딥 방콕. 기존 건축의 산업적 흔적을 살리면서 빛과 여백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2** 방콕 수쿰윗 지구에 자리한 딥 방콕의 입구. 태국어로 '날것'을 뜻하는 Dib이라는 이름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본연의 상태와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를 향한 지향이 담겨 있다. **3**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Straight Up'(1988, 2025년 구현). **4** 나빈 라완차이쿨(Navin Rawanchaikul)의 'Arrival of Taximan'(2000). 나선형 계단을 따라 설치되었다. **5** 알리샤 크바데(Alicja Kwade)의 'Pars pro Toto'(2020). 자연석으로 만든 구체 11개가 야외 중정을 채운다. 이 작품이 놓인 중정과 제임스 터렐의 'Straight Up'으로 이어지는 계단, 나선형 계단이 촬영 장소로 이동되면서 미술관의 건축과 작품이 대중문화의 이미지로도 확장됐다.

방콕의 핵심 상업 지구 수쿰윗의 한 골목 안쪽. 검고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검은 하늘 아래 흰 원뿔형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주위로 저마다 다른 색과 무늬를 지닌 돌 구체들이 중정을 채운다. 딥 방콕의 첫인상을 강렬하게 각인하는 작품은 알리샤 크바데(Alicja Kwade)의 'Pars pro Toto'(2020). 폴란드 태생으로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조각과 설치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간과 공간, 현실에 대한 인식에 질문을 던져왔다. 자연에서 가져온 돌을 구체로 가공한 이 작품에서도 서로 다른 물질과 형태는 낯선 질서를 만들어낸다. 중정 안쪽까지 걸어 들어가 뒤돌아보면, 커다란 돌 구체들은 마치 지상에 내려앉은 행성처럼 보인다.

1980년대 창고를 개조해 조성한 현대미술관 딥 방콕은 태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쿨라팟 얀트라사스트(Kulapat Yantrasast)가 이끄는 WHY 아키텍처(WHY Architecture)가 태국의 A49와 함께 설계했다. 지상 3층, 약 7,000㎡(약 2천1백20평) 규모의 미술관은 11개의 전시 공간을 갖추었다. 노출 콘크리트 기둥과 기존 창고의 흔적을 남긴 건물은 산업적 질감을 간직하면서도 빛과 여백을 세심하게 다듬은 공간으로 거듭났다. 쿨라팟은 건축가를 예술과 사람 사이의 '중매자'에 비유한다. 딥 방콕의 건축 역시 작품을 담는 그릇을 넘어 관객이 예술과 만나는 방식을 제안한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접했을 때만 해도 한 가문의 컬렉션을 공개하는 미술관을 상상했다. 그러나 직접 마주한 딥 방콕은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았다.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넘어, 작품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다음 전시와 미래의 미술 생태계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딥 방콕은 이제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꿈을 넘어, 아들이 만든 기관

방콕 태생인 펫치 오사타누그라(Petch Osathanugrah, 1954~2023)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태국에서 널리 사랑받은 히트곡을 낸 뮤지션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컬렉터였다. 오랫동안 미술품을 수집하며 언젠가 자신의 컬렉션을 대중과 나눌 미술관을 꿈꿨다. 2백 명이 넘는 작가의 작품 1천여 점을 모았지만, 그가 바란 것은 작품을 소유하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컬렉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예술을 통해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꿈이 잠시 멈칫할 수도 있었을 때, 아들 푸랏 창 오사타누그라(Purat (Chang) Osathanugrah, b. 1993)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미술관의 출발에는 한 컬렉터와 큐레이터의 오랜 인연도 자리한다. 2010년께, 데즈카 미와코(Miwako Tezuka)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홍콩 센터의 전시를 준비하며 태국 작가 몽티엔 분마의 작품 'Lotus Sound'를 접했다. 5백 개의 종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계기로 펫치와 인연을 맺은 데즈카는 이후 그가 구상하던 미술관 프로젝트와도 연결됐다. 펫치가 세상을 떠난 뒤 창은 선친의 뜻을 잇기로 결심했다. 데즈카가 방콕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굳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창의 말이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꼭 해낼겁니다." 컬렉션을 미술관으로 바꾸려는 의지와 이를 실현할 전문성이 만나면서, 아버지가 품었던 구상은 실제 기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창이 바라는 딥 방콕의 미래는 한 가문의 이름을 알리는 데 있지 않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가족의 컬렉션에서 출발한 미술관이라는 사실보다 '방콕의 현대미술관'으로 기억했으면 한다. 뉴욕의 MoMA나 런던의 테이트 모던처럼 도시와 함께 떠올리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개관 초기부터 국제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태국 미술의 뿌리를 살피고, 새로운 작가와 관객이 만날 기회를 마련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9월 말 딥 방콕에서 열린 사넬 컬처 펀드 토크에서 창은 이제 자신들을 더 이상 개인 컬렉터라고만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미술관은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장품을 연구하고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며 작가의 창작과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술관의 공공성 역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적으로 출발한 기관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누구와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 데즈카 딥 방콕 관장이 이를 '시민적 책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적인 협력은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방식 중 하나다. 딥 방콕은 사넬 컬처 펀드의 게이트웨이 커미션에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기관 파트너로 선정됐고, 첫 커미션 작가로 태국의 나윈 누통을 초대했다. 올가을 막을 올려 내년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기빙 라이프(Giving Life)〉에서 소개된 'Project 147'은 기존 컬렉션을 전시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작품의 제작을 지원하고, 작가가 작업을 확장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펫치가 모은 작품에서 출발한 미술관은 이제 소장품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동시에 새로운 창작을 뒤받침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6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Les Trois Barres'(1970).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채플에 설치된 모빌은 공기의 흐름에 반응하며 균형과 리듬을 바꾼다. © 2026 Calder Foundation, New York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7** 가토 이즈미(Izumi Kato)의 'Untitled'. **8** 폴 찬(Paul Chan)의 'Para in Penta'. 공기의 흐름에 따라 5개의 천 구조물이 부풀고 접히며 각기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주변 사람들의 몸짓과 일상에서 포착한 움직임을 '움직임의 초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추상적 형태가 살아 있는 존재처럼 저마다의 성격을 드러낸다. **9** 태국 현대미술 거장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의 'untitled 2015 (the marriage of now and then)'(2015). **10** 수티 쿠나비차야논(Sutee Kunavichayanont)의 'Elephant (Breath Donation)'(1998~2001).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시작된 'Inflation and Depletion' 시리즈의 작품이다. 태국의 국가와 왕실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는 경제적 번영의 약속과 그 이면의 허상을 함께 환기한다. **11** 한국계 작가 레이철 윤(Rachel Youn)의 'Gape'(2024). 버려진 우산과 마사지 기계, 인공 식물을 결합한 키네틱 조각이다. 본래 몸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만든 기계가 꽃을 움직이게 하면서, 익숙한 사물은 낯선 생명력을 얻는다. 반복되는 움직임에는 돌봄과 노동, 소진의 흔적이 겹친다.
※ 2, 3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 1, 4~11 이미지 제공_Dib Bangkok Architect Photo. Courtesy of Dib Bangkok. Photo by Tanatip Chawang

#전시는 한 권의 긴 책, 그 안의 챕터들을 잇는 서사

데즈카 관장은 딥 방콕의 전시를 '한 권의 긴 책'에 비유했다. 개관전 〈(In)visible Presence〉가 미술관의 컬렉션과 태국 미술의 뿌리를 소개하는 첫 장이었다면, 두 번째 전시 〈기빙 라이프〉는 작품 간 대화를 이끌어내고 서로 다른 맥락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컬렉션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한다.

개관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3층 전시 공간 대부분을 차지한, 태국 현대미술의 선구적 작가이지만 당시 국제 무대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몽티엔 분마의 작품이었다. 허브와 향, 종과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한 그의 설치 작업은 불교적 세계관과 치유의 감각을 관객이 몸으로 경험하게 한다. 같은 층에서 마주한 독일 거장 안젤름 키퍼의 대형 설치 작품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조형 언어를 지닌 두 작가의 대화를 만들어냈다. 기억과 상실, 영성과 인간을 넘어서는 힘이라는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두 작가의 작품은 예상 밖의 접점을 드러낸다. 국제 미술계의 거장과 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를 나란히 놓은 대담한 시도는 작품 사이의 공명을 통해 설득력을 얻었다.

〈기빙 라이프〉는 이러한 접근을 이어가며 태국과 해외 작가 33명의 작품 1백60여 점을 통해 예술의 움직임과 변형을 탐구한다. 알렉산더 칼더의 움직이는 조각을 주제적 중심축으로 삼아,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품을 연결하고 주변 환경과 관객, 역사적 맥락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핀다. 특히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채플에서는 천장에 매달린 칼더의 모빌이 거대한 수직 공간을 가로지르며 움직인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균형과 형태를 미묘하게 바꾸는 작품은 조각을 고정된 물체가 아닌 살아 있는 움직임으로 경험하게 한다. 작품을 독립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서로 연결해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전시의 핵심이다.

이번 전시에서 몽티엔의 작품은 아라야 라즈자름리안숙을 비롯한 다른 작가들의 작업과 만나 삶과 죽음, 신체와 기억을 둘러싼 질문을 새로운 맥락에서 던진다. 태국 작가 아라야는 죽은 이들의 몸과 살아 있는 사람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는 영상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 애도와 인간의 존엄을 탐구해왔다. 죽음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다루는 대신 관객이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업은 몽티엔의 치유와 영성, 키퍼의 작품이 환기하는 기억과 상실의 문제와도 맞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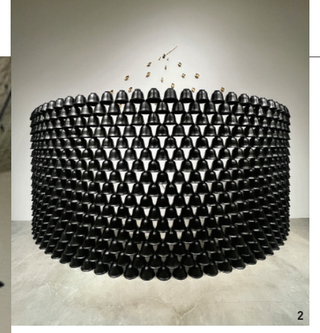
















137 필라스 스위트 & 레지던스 방콕





여행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환대의 미학

태국의 수도 방콕을 여행한 적이 있다면 들어봤을 법한 수쿰윗(Sukhumvit). 이곳은 도심에서 동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주요 도로이자, 대로변에서 뻗어나간 수많은 골목(소이, soi)을 포괄하는 방콕 최대의 핵심 상업·관광 지구다. 주요 거점인 아속부터 프롬퐁, 통로 등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트렌디한 레스토랑, 고급 마사지 숍, 화려한 루프톱 바가 밀집한 방콕의 심장부다. 바로 이 지구에 자리한 럭셔리 부티크 호텔인 '137 필라스 스위트 & 레지던스 방콕(137 Pillars Suites & Residences Bangkok)'은 대로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주거·상업 골목인 '수쿰윗 소이 39' 안쪽에 위치해, 주변의 유명 쇼핑몰과 맛집이 즐비한 상권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도심의 소음이 기분 좋게 잦아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안락한 휴식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는 이유다.



연간 3천만 명 안팎의 방문객이 찾는 방콕은 전 세계 브랜드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호텔의 전장 같은 도시다. 온갖 레이어의 호텔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집을 떠나온 여행자에게 선보이는 공간과 서비스를 둘러싼 차별화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봄 서울에서 열린 137 필라스 호텔 & 리조트의 젊은 여성 경영인 니다 웡판러트(Nida Wongphanlert) 총지배인의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듣고 이 브랜드에 호기심이 생겼던 것도 바로 그 차별화된 결 때문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자신감의 원천은 브랜드의 뿌리에 있었다. '137 필라스'라는 독특한 이름은 1889년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영국의 보르네오 무역회사 본부로 사용되던 역사적인 티크나무 고택에서 유래했다. 당시 건물을 지탱하던 정확히 1백37개의 기둥(pillars)에서 이름을 따온 고택은 2011년 리조트인 '137 필라스 하우스 치앙마이'로 재탄생했다. 치앙마이의 유서 깊은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브랜드는 2017년 방콕에 세련된 방식의 컨템퍼러리 럭셔리를 전파했다. 이곳은 태국의 역사적인 도시 이름을 딴 수코타이, 아유타야, 톤부리, 라타나코신이라는 스위트 객실과 더불어 주방과 세탁 시설을 갖추어, 장기 투숙객들이 집처럼 삶을 수 있는 레지던스 객실이 한 건물에 공존한다.

세심하고 꼼꼼한 배려, 감동의 빈도 높이기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전용 픽업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디테일이 시작된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핸드타월과 시원한 물, 그리고 함께 놓인 망고스틴 젤리(구미 바이트)는 이동에 지친 여행자의 긴장을 부드럽게 녹인다. 이러한 섬세한 서비스의 스펙트럼은 스위트 객실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예컨대 95㎡(약 29평) 규모의 아유타야 스위트의 경우,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안락한 구조로 탁 트인 공간감을 선사하는데 여기에 투숙객의 동선을 읽어낸 깨알 같은 디테일이 숨어 있다. 휴대폰을 분신처럼 아끼는 현대인의 속성을 고려해 객실 내 개인 금고 안에도 충전 단자를 마련해놓았는가 하면, 욕실 화장대 서랍 안에는 헤어드라이어를 바로 꽂아 쓸 수 있는 전용 파워 아웃렛을 내장해두었다. 침실 한쪽에 다음 날 입을 옷을 정갈하게 걸어둘 수 있는 클래식한 밸릿 스탠드(valet stand)를 놓아둔 것도 눈에 띈다.

하이라이트는 탁 트인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발코니다. 이곳에는 137 필라스를 상징하는 시그너처 로킹 체어(흔들의자)와 커다란 데이베드를 놓아 언제든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나만의 휴식처가 된다. 빌트인 TV와 정교한 무드 라이팅을 장착한 대리석 욕조에서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넣고 즐기는 반신욕 역시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던 타지의 공간을 순식간에 포근한 집으로 바꿔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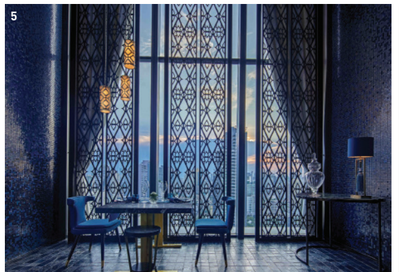
어떤 순간에 찾아오는 엄청난 행복보다, 일상에서 이처럼 작고 정겨운 보살핌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된다. 흔히 인간의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여행자의 동선을 따라 빈번히 감동의 빈도를 높여가는 137 필라스 방콕이 투숙객을 환대하는 방식이 그렇다.

시차를 뛰어넘는 '올데이 조식'의 미학

방콕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니미트르(Nimitr), 스피크 이지 스타일의 잭 베인스(Jack Bain's) 바 등 다채로운 다이닝 공간도 인기가 많지만, 이 호텔 스위트 투숙객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혜택'은 단연 시차를 뛰어넘는 조식 서비스일 것이다. 137 필라스를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특장점인 데, 말만 조식이지 하루 한 차례의 식사를 오전 7시부터 이른 저녁인 오후 5시 사이에 투숙객이 원할 때라면 언제든 즐길 수 있다. 늦잠을 즐기거나, 세계 각지에서 오느라 생체리듬과 시간대가 제각각인 여행자들의 일상을 존중하고 배려한 것이다. 시간만 넉넉한 게 아니라 메뉴의 스펙트럼과 운영 방식도 정교하다. 전용 라운지(Baan Borneo Club)에서 제공하는 아침에는 신선한 아사이 볼, 각양각색의 달걀 요리와 간단한 뷔페를 즐길 수 있다.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메뉴판에 있는 하이엔드 단품 요리를 2시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주문할 수 있는 파격적인 올데이 미식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선한 굴과 스파클링 와인의 페어링부터 똠얌 등 정통 태국 요리는 물론이고 일본식 장어덮밥과 매콤한 김치볶음밥까지 준수한 퀄리티로 차려 내온다. 미식의 도시 방콕다운 구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24시간 '스카이 풀'과 프라이빗 서비스

스위트 투숙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4시간 프라이빗 버틀러 서비스는 물론, 최상층 루프톱 인피니티 풀을 24시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늦은 밤, 루프톱 풀에서 방콕의 3백60도 야경을 보며 수영하는 경험은 색다른 해방감을 선사한다. 인근 쇼핑몰인 엠퀘티어(EmQuartier)와 BTS 프롬퐁역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무료 셔틀 서비스도 편리하다. 클래식 런던 택시를 개조한 '루이(Louie the London Cab)'를 타고 움직이는 셔틀 서비스는 여행자의 쇼핑에도 살짝 실용적인 낭만을 덧댄다. 체크아웃을 마친 후 밤 비행기를 타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27층 게스트 서비스 센터에 사워를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둔 디테일도 돋보인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정겨운 보살핌을 받는 듯한 느낌, 이것이 바로 137 필라스가 제안하는 럭셔리의 방식이다. 글 **고성연**(방콕 현지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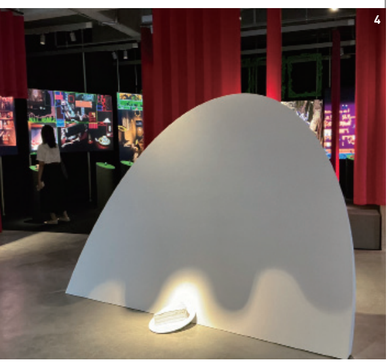


1 137 필라스 스위트 & 레지던스 방콕의 최상층에 위치한 시그너처 루프톱 인피니티 풀. 스위트 투숙객 전용 공간으로 24시간 운영된다. **2** 힐링을 부르는 지상층 야외 가든. 호텔에는 홀리스틱 테라피를 선보이는 니트라 세레니티 센터 등 웰니스 공간이 곳곳에 자리한다. **3** 137 필라스의 아이코닉 셔틀. 영국 정통 런던 택시 차량을 직수입해 내부를 리모델링한 '루이' 모델로, 인근 쇼핑몰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4** 아유타야 스위트(Ayutthaya Suite) 내부. 독립된 다이닝과 거실, 게스트 화장실 등을 갖추고, 맥시 바(Maxi Bar), 프라이빗 와인 셀러, 간이 주방이 빌트인되어 객실에서도 자유롭게 미식을 즐길 수 있다. 장기 투숙을 위한 레지던스의 경우 세탁기, 건조기 등을 갖췄다. **5** 태국어로 '특별한 꿈'을 의미하는 27층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니미트르(Nimitr). 태국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6** 올데이 조식 서비스가 가능한 반 보르네오 클럽(Baan Borneo Club). 스위트 투숙객을 위한 전용 라운지로, 특별한 올데이 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137pillarshotels.com
※ 이미지 제공_137 필라스

#Artists are People Who Bring Matter to Life!

〈기빙 라이프〉 전시 기획을 맡은 젊은 큐레이터 아리아나 차이와라논(Ariana Chaivaranon)은 '예술가는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전시장에 놓인 사물은 작가의 손을 거쳐 움직임을 얻고, 관객과 만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공기에 반응해 춤추고, 때로는 지친 기계의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노동과 소진의 흔적을 드러낸다. 이 주제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가 전시장 초입에서 만나는 폴 찬의 'Para in Penta'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부풀고 접히는 천 구조물은 마치 살아 있는 몸처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꾼다. 찬은 주변 사람들의 몸짓에서 포착한 움직임을 작품에 담아낸다. 추상적 형태가 리듬을 얻으며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은 '춤(La Danse)'을 떠올리게 한다. 인물의 몸짓으로 움직임의 에너지를 표현한 마티스와 공기와 천을 통해 공간 속에 움직임을 구현한 찬은 서로 다른 시대와 매체를 통해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레이철 윤(Rachel Youn)의 작업은 움직임을 몸과 기계, 노동과 소진의 문제로 확장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작가는 중고 마사지 기계와 아기용 그네, 인공 꽃처럼 익숙한 사물을 결합해 키네틱 조각을 만든다.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만든 기계는 사용된 뒤 버려졌지만, 작품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낡은 기계가 인공 꽃을 흔들며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생명체의 몸짓을 닮았으면서도 어딘가 지치고 소진된 듯하다. 큐레이터 아리아나 차이와라논이 말하는,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는 예술의 힘은 여기서 묘한 역설을 드러낸다. 생명을 닮은 움직임은 활력만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과 피로를 떠올리게 하지만, 기계들은 남아 있는 힘으로 춤을 추듯 움직인다. 마치 소진의 끝에서도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듯, 이 작품은 관객에게 '남아 있는 생명으로 춤추자'라는 초대를 건넨다.



1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b. 1945)의 'Der verlorene Buchstabe'(2019). 금속, 나무, 납, 사진, 수지 해바라기 등을 활용한 파괴된 인쇄기와 그 사이로 피어나는 해바라기는 전쟁의 폐허와 재생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2** 몽티엔 분마(Montien Boonma, 1953~2000)의 'Lotus Sound'(1992/1999~2000). 금박을 입힌 연꽃을 둘러싸고 5백 개의 테라코타 종이 놓여 있다. 아내의 치유를 기원하며 찾은 사원의 종소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3** 태국 작가 아라야 라즈자름리안숙(Araya Rasdjarmrearnsook)의 'Dinner with Cancer II (Rebirth)'(1994/2026). 삶과 죽음, 신체와 기억을 둘러싼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4** 태국 방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현대미술 작가 나윈 누통(Nawin Nuthong, b. 1993)의 'Project 147'. 태국 고전문학 〈쿤창 쿤팬〉을 참고해 조각과 디지털 이미지, 게임의 요소를 결합한 설치 작품이다. 샤넬 컬처 펀드(CHANEL Culture Fund)가 딥 방콕과 협력해 진행하는 커미션 프로그램 'CHANEL Gateway Commission'을 통해 제작을 후원했다. **5** 바심 알 샤케르(Bassim Al Shaker)의 'The First Sky'(2026). 이 파사드에 프린트된 작업은 3층에 전시된 회화 작품들과 연결된다. **6** 미국 작가 케이틀린 키오(Caitlin Keogh)의 회화 연작 'Procession'(2024). 작가의 전 스승인 미술사학자 마이클 도르슈와 15년간 주고받은 우편물의 도상 50여 가지를 겹쳐 그린 회화 연작이다. 1520년 독일 화가 크라나흐의 명화 윤곽선과 1930년대 잡지 광고 등을 한 평면에 모아 시공간을 넘어 서로 대화하는 이미지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 1, 2, 4 Photo by 고성연
※ 3, 5, 6 이미지 제공_Dib Bangkok Architect Photo. Courtesy of Dib Bangkok. Photo by Tanatip Chawang

#컬렉션을 넘어,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딥 방콕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은 컬렉션만이 아니다. 미술관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창의적 추진력, 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공간으로 풀어낸 건축가 쿨라팟 안트라사스트, 미술관의 운영과 방향을 이끄는 데즈카 미와코 관장, 새로운 전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젊은 큐레이터의 기획력이 한곳에서 만난다. 여기에 샤넬 컬처 펀드와의 협력처럼 새로운 작품의 제작과 작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외부 파트너십도 더해진다. 물론 이것만으로 방콕의 문화적 르네상스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연구, 창작 지원, 기관 간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미술관이 작가에게 새로운 작업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동시대 미술을 이해할 통로를 열며, 교육기관과 다른 문화 예술 공간을 연결한다면 그 역할은 소장품을 보여주는 데서 한층 넓어질 것이다.

쿨라팟은 태국이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빌려오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보물은 우리 안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창이 말한 '문화적, 창의적 부'도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를 얻는다. 딥 방콕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걸작을 소장하고 얼마나 국제적인 주목을 받느냐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대화가 작가와 관객, 교육기관과 문화 예술 공간을 잇고, 도시 전체의 창작과 교류를 움직이는 하나의 '판'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사적인 컬렉션이 함께 누리고 키워가는 문화적 부로 바뀌는 순간, 미술관은 건물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글 **고성연**(방콕 현지 취재)



Shape of You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는 유니크한 세이프의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어시스턴트 **김지원**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레게 레인 드 네이플 8908** 나폴리의 여왕 카롤린 뮤라를 위해 브레게가 제작한 손목시계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으로 12시 방향 문페이즈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매치하고,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 그리고 로듐 마감 및 천연 화이트 자개 다이얼로 우아하게 완성했다. 7천70만원. 문의 02-6905-3571

에르메스 에이치 아워 가로세로 12mm의 정사각형 스틸 케이스에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H로 완성해 독특한 감성을 전한다. 오팔린 실버 다이얼과 은은한 스카이 블루 컬러의 앨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선사하는 쿼츠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피아제 식스티 헤리티지 타임피스에서 영감받은 독특한 트라페즈 형태의 18K 로즈 골드 케이스를 갖춘 여성 워치. 새틴 브러시 처리한 실버 컬러 솔라 다이얼에 네이비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더했다. 피아제 57P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5백60만원. 문의 1877-4275

까르띠에 똑뛰 1912년 루이 까르띠에가 고안한 거북이 형태의 케이스 디자인으로 아이코닉한 감성을 더하는 워치. 미니 사이즈 핑크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과 샤이니 레드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장착하고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쇼파드 디아망트 오벌형의 18K 에티컬 로즈 골드 케이스에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 22개를 세팅한 베젤로 더욱 독특한 감성을 자아낸다. 머더오브펄 다이얼에 12개의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와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주얼리적 무드를 선사한다. 1억5천8백54만원. 문의 02-6905-3390

부첼라티 틀레 베네치아의 전통적인 레이스에서 영감받아 허니콤 형태로 제작하는 튈 기법으로 텍스타일의 촉감, 시각적 효과를 구현한 디자인. 지름 28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490

쇼메 조세핀 아그레뜨 나폴레옹의 황후 조세핀과 그녀가 착용했던 티아라에서 모티브를 얻은 아이코닉한 페어 셰이프가 특징인 컬렉션의 워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23캐럿을 세팅한 베젤, 브랜드를 상징하는 블루 태양 광선 브러싱 마감 다이얼로 완성해 위엄을 자랑한다. 1천2백60만원. 문의 1670-1180

에디터 **성정민**

Fine Artistry

주얼리 메종의 정교함에서 드러나는 장인 정신을 발견하는 즐거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어시스턴트 **김지원**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쉐론 리에르 드 파리 다이아몬드 브로치** 창립자 프레데릭 부쉐론이 사랑했던 식물 중 하나인 파리의 담쟁이덩굴에서 영감받은 컬렉션. 섬세하게 표현한 잎사귀 패턴과 볼륨감이 돋보인다. 화이트 골드에 85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했다. 4천1백30만원. 문의 080-822-0250 **샤넬 파인 주얼리 부동 드 까멜리아 크롤링 이어링** 브랜드의 상징인 까멜리아 플라워를 섬세하게 표현한 이어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과 우아함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디미아니 미모사 플렉시 브레이슬릿** 여성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동명의 식물에서 영감받은 주얼리 컬렉션으로 복잡한 미모사를 표현하기 위해 아주 섬세한 세공을 거쳤다. 총 5줄의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은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었으며,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독특하게 세팅해 무질서 속 질서가 주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쇼메 조세핀 아그레뜨 링 브랜드의 상징인 V자 머리 장식을 정교한 레이스를 연상시키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완성한 화이트 골드 소재 링 3천7백50만원. 문의 1670-1180 **쇼파드 디아망트 마르퀴즈 네크리스** 다이아몬드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빛을 표현한 컬렉션으로 18K 에티컬 화이트 골드에 총 3.3캐럿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 19개를 디테일하게 세팅해 완성했다. 6천3백63만원. 문의 02-6905-3390 **프레드 포스텐 셀레브레이션 링** 18K 화이트 골드에 0.5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0.2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 2.0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8개를 물 파베 세팅한 하이 주얼리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티파니 버드 온 어 락 미니 버드 네크리스** 전설적인 디자이너 잔 슐럼버제의 버드 온 어 락에서 영감받아 선보인 18K 옐로 골드 펜던트.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의 조형적인 깃털 디자인과 움직임 등을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그라프 틸다의 보우 컬렉션 더블 로우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손으로 매듭지은 듯한 리본의 실루엣을 정교하게 구현한 디자인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다양한 커팅의 다이아몬드 총 6.77캐럿을 세팅해 리본의 리듬감과 볼륨감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1억5백40만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성정민**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숫자,
5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파인
주얼리 컬렉션.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N°5 후프 이어링, 18K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N°5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After Five

오후 5시, 여자의 우아한 변신이 시작된다.

PHOTOGRAPHED BY **KIM SUN HYE**



양쪽의 언밸런스한 디자인이 개성 있는 연출을 돕는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 N°5 이어링, 다이아몬드 장식의 18K 화이트 골드 N°5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아이코닉한 숫자 5에 드롭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화려함을 더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N°5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N°5 후프 이어링,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N°5 링,
다이아몬드 세팅 18K 베이지 골드 소재 N°5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18K 베이지 골드와 파베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N°5 링,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N°5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N°5 링,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의 N°5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베이지
골드 숫자 5 모티브에 물방울 세이프를
더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이어링,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N°5 링,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더한
N°5 링, 다이아몬드 세팅 18K 옐로
골드 소재 N°5 링,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의 뱅글 형태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N°5 네크리스,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더한 N°5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N°5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모델 **아라**
어시스턴트 **김지현**
에디터 **성정민**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베이지 골드의 코코 크러쉬
미디엄 후프 이어링, 18K 옐로 골드로
이루어진 퀼팅 모티브의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스몰 링, 파리 방돔 광장과
샤넬 N°5 향수병 뚜껑에서 영감받은
18K 옐로 골드 팔각형 케이스에
골드 코팅 체인과 블랙 레더
브레이슬릿 및 잠금장치로 완성한
프리미에르 오리지널 에디션 워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Own Your Time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 코드.

PHOTOGRAPHED BY **KIM SUN HY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링,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코코 크러쉬 스몰 링, 스틸 케이스에 스틸과 블랙 가죽 리본을 엮은 체인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하고 블랙 래커 다이얼을 매치한 프리미에르 아이코닉 체인 워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퀼팅 모티브의
다이아몬드 세팅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코코 크러쉬 이어링,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 코코 크러쉬 스몰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스몰 네크리스,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라지 네크리스, 아이코닉한 팔각형
스틸 케이스에 블랙 가죽 스트랩을
엮은 더블 로 스틸 체인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한 프리미에르 아이코닉 체인
더블 로우 워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벨벳으로 장식한 레드
러버 스트랩을 매치해 포인트를
준 프리미에르 리본 레드 워치,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코코 크러쉬 이어링, 다이아몬드
장식의 18K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스몰 링,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위부터 차례대로) 퀼팅 모티브의 18K
옐로 골드로 이뤄진 코코 크러쉬 미디엄
후프 이어링, 18K 옐로 골드 케이스
및 뱅글에 블랙 래커 다이얼을 매치한
프리미에르 갈롱 워치, 18K 베이지
골드의 C 모티브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코코 크러쉬 링, 18K 옐로 골드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서아름**
모델 **이서연**
어시스턴트 **김지현**
에디터 **성정민**

Get The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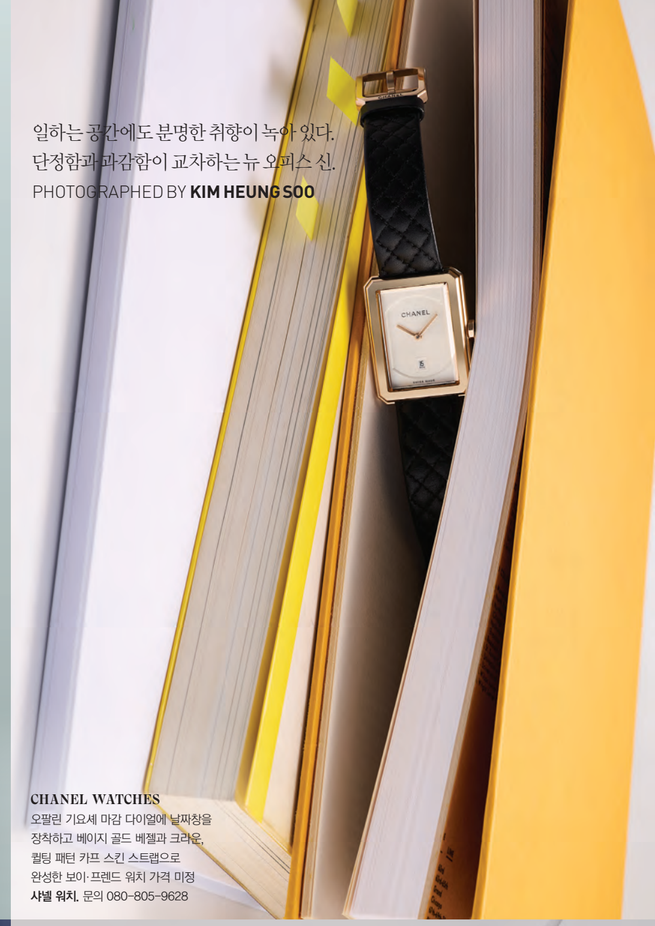
CHANEL
민트 컬러 앞코로 포인트를 준
버건디 램 스킨 뮬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ELINE
블루 컬러와 사각 실루엣,
로고 클로저가 조화로운
램 스킨 버티컬 파우치
트리옹프 백. 13×17×3cm,
1백7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CHAUMET
허니콤 모티브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네크라인의
굴곡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화이트
골드 비 드 쇼메 네크리스 가격
미정 **쇼메.** 문의 02-3479-1597



일하는 공간에도 분명한 취향이 녹아 있다.
단정함과 과감함이 교차하는 뉴 오피스 신.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CHANEL WATCHES
오팔린 기요세 마감 다이얼에 날짜창을
장착하고 베이지 골드 베젤과 크라운,
퀼팅 패턴 카프 스킨 스트랩으로
완성한 보이·프렌드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0-805-9628



TIFFANY & CO.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몬드 세팅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의 로프 링, 루비와 다이아몬드,
골드의 선명한 색채가 특징인 식스틴 스톤 루비 링,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그린 차보라이트에
볼드한 골드 스터치를 더한 식스틴 스톤 차보라이트
링, 로즈 골드 매듭 모티브의 노트 더블 로우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문의 02-1670-1837



BOUCHERON
화이트 골드 비즈와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3개의 드롭
모티브를 크기순으로 배치한 쎄뿡
보헴 멀티 모티브 펜던트 가격 미정
부쉐론. 문의 080-822-0250



RALPH LAUREN COLLECTION
벨트와 메탈 플레이트 키벨로 장식한
카프 스킨 소재 더 랄프 미니 토트백.
16×19×11cm, 3백9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어시스턴트 **강지현**



OMEGA
38mm 세드나 골드 케이스와
브라운 다이얼에 서브 다이얼,
타원형 날짜창, 타키미터 스케일을
갖추고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한 스피드마스터 1천3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3467-8632
에디터 **김하얀**

A Woman in Black

가장 시크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우아하게.
또다시 블랙의 매력에 빠지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레이어링 피스인 트위스트 도넛
1백76만원, 트위스트 톱,
3백61만원, 크레이터 쇼츠
5백58만5천원, 레더 부츠
1천3백93만원 모두 **릭 오웬스**



블랙 키드 모헤어 재킷 5백만원대, 미러 및 프린지 장식 블랙 실크 드레스 가격 미정, 이너로 입은 블랙 자카드 실크 드레스 6백만원대, 블랙 레더 샌들 2백만원대, 블랙 레더 칼라 1백만원대 모두 **펜디.**



플리세 레더 코트 3천4백10만원,
인트레치아토 레더 스커트 1천5백98만원,
시어링 뮬 2백53만원, 이어링 가격 미정
모두 **보테가 베네타.**



모노그램 노트 포켓 드레스,
러스틱 버튼 더블브레스트 재킷,
플리티드 버뮤다 쇼츠, 테일러드
슬림 핏 팬츠, 루나 펌프스,
아틱 콘 햇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비대칭 버튼 디테일 재킷 가격 미정 **페라가모.** 드레이프 울 미니스커트 가격 미정 **스포트막스.** 블랙 레더 부츠 가격 미정 **버버리.** 클로 이어링 3백62만원 **보테가 베네타.**

미니드레스 6백60만원,
스트레치 새틴 오버 더 니 부츠
2백95만원 모두 **셀린느.**
선글라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싱글브레스트 울 코트 6백16만원
토즈, 소프트 나파 더블브레스트
재킷 7백60만원, 소프트 나파
미니스커트 4백50만원 모두 **구찌**,
버클 장식 롱부츠 가격 미정 **누트**.

울 스웨터, 리베스 비스코스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스포트막스**,
레더 조거 팬츠 가격 미정 **버버리**,
베리 콜리브리 펌프스
1백75만원 **펜디**.

헤어 **이예나**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Guan(GOST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구찌 02-3452-1521
누트 010-3062-5133
루이 비통 02-3432-1854
릭 오웬스 02-6905-3578
버버리 080-700-880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94
셀린느 1577-8841
스포트막스 02-511-3935
토즈 02-3438-6008
페라가모 02-3430-7854
펜디 02-544-1925

Carry the Season

다채로운 F/W 신상 백 스타일로 보는 남자의 취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이코닉한 큐브 형태의 백을 한층 더 가벼운 감각으로 재해석한 페더라이트 퍼즐이 특징인 나파 램 스킨 소재의 라지 페더라이트 퍼즐 백. 33×21.5×14.7cm,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수직으로 긴 직사각형 실루엣에 트리옹프 로고를 음각해 클래식한 무드를 자아내는 서플 샤이니 램 스킨 소재의 트리옹프 터치 버티컬 카바스. 34×40×8cm, 3백5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메탈프리 태닝으로 제작한 독특한 내추럴 그레인 송아지가죽인 블랙 컬러 로마노 가죽 소재로, FF 형태의 메탈 스냅 버클 2개로 장식한 플랩이 포인트인 펜디 플로우 스몰. 23×14×7cm, 4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착용 방식에 따라 자연스럽고 유려한 곡선미를 자아내며, 유쾌한 감성을 전하는 불 카프 소재의 린디 보야주 백. 41×25×28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아이코닉한 쿠퍼 백 스타일로 영국 새들 캐리어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디자인. 카프 스킨 소재에 브라스 하드웨어로 마무리해 중후한 매력을 자랑한다. 51×36×30cm,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브리프케이스로, 최상의 퀄리티와 극도로 부드러운 촉감을 지닌 카프 스킨 소재로 완성했다. 48×34×18cm,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3442-1831

어시스턴트 **김지현**



윗부분의 실루엣을 감싸는 독특한 벨트 디자인이 특징으로, 앤티크한 마감의 나파 가죽을 사용해 심플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전한다. 숄더 스트랩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버클 앤티크 나파 가죽 백. 48×34×18cm,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에디터 **성정민**



구찌 뷰티 플로라 루즈 드 보떼 브리앙 130 엘사 헤이즐
크리미한 텍스처에 아몬드와 소프트 베이지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컬러를 담아 데일리 립으로 제격이다. 1.8g 6만3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신정임**

크리스찬 디올 뷰티 NEW 미스 디올 컴포팅 바디 크림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가 피부에 쏙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며 충분한 보습감과 은은한 플로럴 부케 향을 남긴다. 150ml 14만5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기분 좋은 잔향을 남기는 향수와 생기 있는 립, 피부를 섬세하게 가꿔줄 스킨케어까지.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KIM YOU TAE**

NEW FRAGRANCE

킬리안 파리 러브, 돈 비 샤이 상큼하고 화사한 오렌지 블러섬으로 시작해 달콤한 마시멜로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조가 가을과 겨울에 잘 어울린다. 30ml 29만원. 문의 02-793-9249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NIGHT REPAIR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멀티-리커버리 콤플렉스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한 크로노룩스™ 파워 시그널 테크놀로지를 함유해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깊고 얕은 주름을 케어해 탄탄하고 활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50ml 20만원.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김하얀**

딥티크 레 리츄엘 드 수앙 컬렉션 너처링 바디 앤 헤어 클렌징 젤 고대 문명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패키지와 싱그러운 베르가모트 향으로 샤워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350ml 11만4천원. 문의 02-3446-7494 _by 에디터 **성정민**

록시땅 이모르텔 디바인 타겟티드 링클 케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부쩍 눈에 띄는 잔주름이 고민이던 차에 만난 제품. 아데노신과 이모르텔 슈퍼 추출물, 헥사펩타이드-8,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이마와 미간, 눈가 등 주름 고민을 집중 케어한다. 15ml 12만4천원. 문의 02-2054-0500 _by 에디터 **신정임**

발헴 퍼퓨머리 디어 폴리 EDP 레몬과 베리의 프루티한 노트에 플로럴 향을 더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포근하고 기분 좋은 잔향을 남긴다. 100ml 가격 미정. 문의 080-363-5454 _by 에디터 **신정임**

CALM & BALANCE

희녹 캄 앤 밸런스 오일 바쁜 일상 속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기분 전환을 돕는 롤온 타입의 에센셜 오일. 제주 편백을 비롯한 100% 자연 유래 성분을 담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7ml 3만6천원. 문의 070-4184-1005 _by 에디터 **김하얀**

입생로랑 뷰티 케어 크러쉬 핸드 앤 바디 세럼 인 크림 싱그러운 그린 노트와 화이트 플로럴 향이 조화를 이루는 하트 셰이프 패키지 핸드크림. 가볍고 부드럽게 스며들어 쌀쌀해진 날씨에 손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50ml 8만8천원. 문의 080-347-0089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 김하얀(40대 지성), 성정민(30대 민감성), 신정임(30대 복합성), 김지현(20대 건성)







1 펜디 2027 S/S 컬렉션
펜디가 2027 S/S 컬렉션을 공개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키우리는 '몸과 옷의 감정적 관계'를 주제로 남녀 언더웨어를 컬렉션의 출발점으로 삼아 섬세한 레이스와 시스루 케이프, 슬립 드레스 등을 대담하게 레이어링하며 젠더의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몸의 자유를 표현했다. 쇼 공간 벽과 바닥에 거울을 배치해, 그곳에 비친 수많은 몸처럼 서로 다른 개성과 감정이 어우러진 컬렉션의 콘셉트를 보여주었다. 문의 02-544-1925

2 델보 한스 옵 드 빅 X 델보
델보가 벨기에 현대미술가 한스 옵 드 빅의 작품을 본사와 공방 곳곳에 설치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작가의 시그너처인 잿빛 모노톤 컬러로 대나무 숲과 수련이 가득한 연못, 조각상 등을 아틀리에 내부에 거대한 실내 정원 형태로 구현했다. 인내와 정교함을 요구하는 예술과 가죽공예의 공통점을 담아낸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델보의 상징적인 '브리앙' 백이 자리해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문의 02-6905-3709

3 파비아나필리피 2026 F/W 환절기 룩 제안
파비아나필리피 2026 F/W 컬렉션의 주요 아이템 중 하나인 V넥 스웨터는 플래티넘과 모헤어를 혼합한 소재로 제작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픈워크 스티치를 더해 섬세한 짜임과 입체적인 디테일이 특징이며, 함께 매치한 풀 미디스커트는 엉겅퀴 무늬가 돋보이는 자카드 레이스 소재로 여성스러운 감성을 강조한다. 섬세한 니트와 자카드 레이스 스커트가 어우러져 소재의 대비가 돋보이는 우아한 룩을 완성한다. 문의 02-6960-0843

Showroom



4 줄리엣 해즈 어 건 퍼플 트러블 EDP
프랑스 컨템퍼러리 니치 프레이그런스 브랜드 줄리엣 해즈 어 건이 신제품 '퍼플 트러블 오 드 퍼퓸'을 선보였다. 브랜드 창립자이자 조향사인 로마노 리치는 풍성하고 야생적인 블랙베리에 레드 칠리 페퍼를 더해 이색적인 향의 조화를 완성했다. 보틀은 블랙베리를 연상시키는 퍼플에서 강렬한 레드로 이어지는 그러데이션으로 디자인해 두 향료의 강렬한 조합을 표현했다. 문의 080-363-5454

5 셀린느 2027 에테(Été) 쇼
마이클 라이더가 이끄는 셀린느의 2027 여름 컬렉션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워드로브에 집중했다. 클래식한 드레스와 수트부터 볼드한 액세서리, 낡은 스니커즈, 반다나 패턴의 팬츠까지 자유롭게 선보이며 포멀과 캐주얼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옷을 입는 사람의 태도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마이클 라이더의 시선이 돋보인다. 문의 1577-8841

6 그라프 브라이덜 캠페인
그라프가 로맨틱한 주얼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브라이덜 캠페인을 공개했다.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특징인 이번 캠페인은 메종의 인게이지먼트 링과 웨딩 밴드, 웨딩 주얼리를 담고 있다. 특히 인게이지먼트 링은 센터 스톤을 파베 다이아몬드 헤일로로 감싸 화려한 빛을 극대화한 디자인으로, 어느 각도에서든 눈부신 실루엣을 제공한다. 문의 02-2150-2320

7 샤넬 레 조 드 샤넬 파리- 생모리츠 오 드 뚜왈렛
차가워진 공기에 걸맞은 향수를 추천한다. 바로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스위스 생모리츠의 설원에서 영감받아 완성한 겨울 향수 '레 조 드 샤넬 파리-생모리츠'. 신선한 배 어코드에 우아한 로즈와 관능적인 머스크 앰버를 가미해 화사하면서도 포근한 겨울 무드를 표현한다. 문의 080-805-9638







CHANEL



In The Greatest Strength Lies Softness

스틸보다 7배 더 견고한 J12 세라믹. 그 궁극의 강인함은 부드러움에서 시작됩니다.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폴리싱된 세라믹은 실크처럼 매끄러운 촉감을 선사하고,
칼리버 12.1 매뉴팩처 무브먼트는 샤넬 워치메이킹의 탁월한 전문성을 구현합니다.
손목에 닿는 순간, 착용하는 이와 하나가 되는 견고한 부드러움.

J12

* 궁극의 강인함 속 부드러움